미국 : 흑인 노동자들, 다른 인종 집단에 비해 최근의 경제호황 수혜를 가장 적게 누려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흑인 노동자들은 미국의 최근 경제호황에서 가장 적은 이익을 얻었다. 2008년에 발생하였던 경기위기 직전인 2007년 4사분기에 비하여 2019년 1사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주간 임금의 중앙값(median)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 12월 주당 임금의 중앙값이 854달러였으나 2019년 1사분기에는 이보다 주당 46달러가 상승하여 주당 임금의 중앙값이 900달러 수준이 되었고, 이는 5.3% 수준의 상승분으로 환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이 모든 인종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흑인 노동자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주간 임금의 중앙값이 700달러에서 711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여 단 1.6%만의 상승분만을 경험하였다. 한편, 히스패닉 노동자들은 같은 기간에 주간 중앙값 임금이 주당 619달러에서 692달러로 11.8% 증가하여 최근의 경제호황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인종 집단이 되었다. 아시안은 10.2%(1,022달러에서 1,126달러), 백인은 5.7%(880달러에서 930달러) 수준의 상승을 보여 히스패닉 노동자들보다는 낮지만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의 상승분을 기록하였다. 이에 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인종, 민족, 경제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발레리 윌슨(Valerie Wilson)은 인종 차별, 범죄 배경 조사 및 지리적인 분리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흑인 노동자가 왜 더 나은 이익을 얻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

1) The Wall Street Journal(2019.4.16), "As Wages Rise, Black Workers See the Smallest Gains," Retrieved on April 18th, 2019, https://www.wsj.com/articles/as-wages-rise-black-workers-see-the-smallest-gains-11555437942?mod=searchresults&page=1&pos=5

미국 : 백악관, 2020 회계연도 노동부 예산 약 10% 삭감 제안

2019년 3월 미국 백악관에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예정된 2020년 회계연도 미국 노동부 예산을 120억 달러(한화 약 1조 3,642억 원)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기존 예산 대비 9.7% 삭감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근거가 없거나 중복되는' 노동과 관련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제안한 프로그램들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유색 인종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Job Corps)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인 이방카 트럼프(Ivanca Trump)는 현재까

지 생산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였거나 결과 측정이 어려운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이 많다며 사기업들이 직업훈련의 주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해당 제안서에는 예산 관련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제안도 있었는데, 이민자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2배로 늘려 트럼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수습(apprenticeship) 제도나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의 직업훈련 교육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미 의회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하지만, 위와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미국 노동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

1) The Wall Street Journal(2019.3.11), "White House Proposes to Cut Labor Department Funding by Nearly 10%," Retrieved on April 19th, 2019, https://www.wsj.com/articles/white-house-proposes-to-cut-labor-department-funding-by-nearly-10-s11552334324?mod=cx_picks&cx_navSource=cx_picks&cx_tag=contextual&cx_artPos=4#cxrecs_s

미국 : 실업수당 수급 건수 예측치에 비해 하락

2019년 3월 28일, 미국 노동부는 실업수당 신청 건 대비 수급자 숫자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3월 23일 마감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은 211,000건이었으나, 실제 수급자 수는 그보다 5,000건이 적었다. 참고로 Reuters에서 경제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실업수당 신청 예측치는 225,000건으로 실제 신청 건(211,000건)보다 높았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일자리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2009년 금융위기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한 주에 665,000건까지 상승하였으나, 2019년 3월 넷째 주 211,00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실제로 미국 일자리 증가율은 지난해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며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실업률은 2019년 3월 3.8%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렇게 긍정적인 수치는 노동력 부족, 1.5조 달러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등에 기인한다.[1)]

1) CNBC(2019.3.28), "US weekly jobless claims unexpectedly fall," https://www.cnbc.com/2019/03/28/weekly-jobless-claims.html

스웨덴 : 춘계 예산안에 대한 고용부 장관의 입장

스웨덴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춘계 예산안 중 3억 4천 크로나(한화 약 365억 원)를 노동시장 정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 고용부 장관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은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온건당-기민당이 함께 참여한 이 예산안으로 인해 360만 크로나(한화 약 4억 원)가량 감소된 노동시장 관련 예산이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녀는 이번에 투입될 예산이 지역 일자리 프로그램(Jobbspår)이라 불리는 정책에 특별히 많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을 통해 구직자는 훈련 및 교육 또는 특정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구직자는 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고용서비스센터와 지자체 기관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6,500명의 구직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1) Dagens Industri(2019.3.31), "Regeringen jobbsatsar 340 miljoner – räcker inte," https://www.di.se/nyheter/regeringen-jobbsatsar-340-miljoner-i-varbudgeten-racker-inte/

스웨덴 : 프로축구 클럽, 구직 서비스 NGO 운영

스웨덴 말뫼 지역의 프로축구 클럽 FC 로셍오르드(Rosengård)는 스웨덴 여성 축구리그에서 10회 우승한 명문 클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클럽은 축구뿐 아니라 2003년 클럽에서 시작된 Boost[1]라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유명세를 얻었다. Boost은 클럽 내 선수 부모들의 직장을 구해주는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및 조직으로 현재는 말뫼 지역의 실업 문제를 다루는 큰 NGO로 성장했다.[2]

Boost는 상위 조직인 FC 로셍오르드와 규모가 비슷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예산만 놓고 보았을 때는 축구 클럽보다 더 큰 조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의 존재가 더욱 부각된 것은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 말뫼 지역의 중도우파계열 정당들이 내건 공약 때문이다. 이 정당들은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의 지역 사무소(Jobb Malmö)를 닫는 대신 해당 기관의 모든 권한을 FC 로셍오르드에 넘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11년 이래, Boost는 2,2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교사, 심리치료사, 리크루터 등을 한데 모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숍을 운영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Boost는 현재 다양한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을 돕

고 있는데 고용가능성이 높은 이들뿐 아니라 고용가능성이 희박한 이들까지도 포함하여 구직활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oost는 현재 스웨덴이 누리고 있는 호경기로 인해 취업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경계하며 장기적으로 닥칠 불황에 대비해 구직자들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투입 비용(25,000크로나(한화 약 304만 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말뫼 지역의 중도우파계열 정당들은 평가했다.

1) Boost, http://www.boostbyfcr.se/
2) The Local(2019.4.19), "How did a football club become Malmö's biggest job charity?," https://www.thelocal.se/20190419/how-did-a-football-club-become-malms-biggest-job-charity

스웨덴 :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기장들, 단체교섭 결렬 이후 노동쟁의에 나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사(SAS)의 기장들은 항공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2019년 4월 말 파업 및 노동쟁의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1] 각국의 항공기 기장들은 급여 인상, 근로시간, 일정 관리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다.

4월 말 사용자와의 새로운 협상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지만 새 협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기장 노조원들은 4월 26일 자정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2] 이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기장 노조원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당 항공사 기장의 대다수인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 The Local(2019.4.3), "SAS pilots threaten strike at end of April," https://www.thelocal.dk/20190403/sas-pilots-threaten-strike-at-end-of-april
2) The Local(2019.4.3), "SAS pilots to go on strike this week unless last-minute deal is reached," https://www.thelocal.se/20190423/sas-pilots-in-sweden-denmark-and-norway-to-go-on-strike-this-week-unless-last-minute-deal-is-reached

영국 : 최저임금 큰 폭 인상

2019년 4월 1일, 영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다. 우선 2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인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이 시간당 7.83파운드(한화 약 11,500원)에서 8.21파운드(한화 약 12,150원)로 약 5% 인상되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 국가생활임금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으로, 연간 소득이 약 690파운드(한화 약 102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

또한 25세 미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도 인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1~24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38파운드(한화 약 11,500원)에서 7.7파운드(11,300원)로(연간 소득 580파운드(한화 약 85만 원) 증가), 18~20세에 대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9파운드(한화 약 8,700원)에서 6.15파운드(한화 약 9,100원)로(연간 소득 455파운드(한화 약 67만 원) 증가) 인상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인상 속도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영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노동자 수가 소매업 및 숙박·요식업에 종사하는 80여만 명을 포함하여 총 21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 영국 재무부 장관(Chancellor of Exchequer)은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20년래 최저 수준인 저임금 일자리의 비율을 더 낮추기 위해 관련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아린드라짓 두베(Arindrajit Dube) 교수에게 최저임금이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브라이언 샌더슨(Bryan Sanderson) 저임금위원회 의장(Low Pay Commission Chair)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가생활임금과 국가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임금인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왔다"라고 평가했다.

1) UK government press release(2019.4.1), "Biggest ever increase to National Living Wage comes into effect," https://www.gov.uk/government/news/biggest-ever-increase-to-national-living-wage-comes-into-effect

영국 : 자동가입 직장연금 최저 기여율 인상[1)]

2019년 4월 6일 BBC에 따르면, 2019 과세연도(tax year, 2019.4.6~2020.4.5)부터 1천만 명 이상의 영국 근로자들의 연금 납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영국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이 1만 파운드 이상인 22세 이상 노동자들을 직장연금(workplace pension)에 자동 가입(Automatic enrolment)시키고 연금을 원치 않는 노동자는 자동등록 후 탈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9 과세연도부터 동 연금의 최저 기여율이 기존의 5%에서 8%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고용주의 기여율은 기존 2%에서 3%로 인상되었다.

이번 인상으로 연간 소득이 3만 파운드(한화 약 4,40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매월 32파운드(한화 약 47,000원)의 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BBC는 이번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최소 구간이 기존 11,850파운드에서 12,500파운드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실질 부담 증가폭은 다소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또한 투자회사 AJ Bell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톰 셀비(Tom Selby)의 말을 인용하여 "직장연금을 탈퇴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연금 부담분을 거절하면, 이를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는 몇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현재 연간 소득이 3만 파운드인 24세 노동자의 경우 퇴직 후 현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1,000파운드(한화 약 1,6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출산 및 육아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 등 연간 소득이 1만 파운드(한화 약 1,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BBC는 여성이 임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수준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직장연금에 가입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직장연금 부담분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모두 보도하였다.

1) BBC(2019.4.6), "Ten million people face higher pension payments," https://www.bbc.com/news/business-47816511

호주 : 정부, 대규모 감세 조치 발표

호주 정부는 2019년 4월 2일, 2019~20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1)]

먼저 연간 소득이 12만 6천 호주달러(한화 약 1억 2,4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추가적인 세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장 큰 수혜자

는 연간소득이 4만 8천 호주달러(한화 약 3,900만 원)에서 9만 호주달러(한화 약 7,300만 원)인 근로자로, 2019년부터 연말 세금공제를 통해 기존 530 호주달러(한화 약 43만 원)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1,080호주달러(한화 약 87만 원)를 돌려받는다.[2)]

정부는 또한 소득세율을 2024~25 회계연도까지 32.5%에서 30%로 인하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연간소득이 4만 5천 호주달러(한화 약 3,600만 원)에서 20만 호주달러(한화 약 1억 6,200만 원)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호주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94%가 이 구간에 속해 있다.[3)]

이 밖에도 중소기업 대상 감세 정책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4)]들이 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한 자산 가격이 2만 5천 호주달러(한화 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 환급을 받았던 반면 이제는 이 감세 혜택이 중견기업[5)]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산 가격 최고한도(instant asset write-off threshold)를 3만 호주달러(한화 약 2,400만 원)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자격조건 완화로 22,000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에서는 이러한 감세 조치들이 향후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정책연구소인 그래튼 인스티튜트(Grattan Institute)는 현 정부 재정으로는 제안된 소득세율 인하 조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노동당 역시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비 재무장관 크리스 보웬(Chris Bowen)은 여당이 정부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고소득자들의 감세 혜택도 확대했다고 비판하며, 호주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1) ABC News(2019.4.3), "Federal Budget 2019: Winners and losers," https://www.abc.net.au/news/2019-04-02/federal-budget-2019-winners-and-losers/10939098
2) Budget 2019-20, https://www.budget.gov.au/2019-20/content/tax.htm
3) The Guardian(2019.4.2), "Coalition budget woos low and middle-income earners with $19.5bn tax cut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apr/02/coalition-federal-budget-2019-woos-low-and-middle-income-earners-with-195bn-tax-cuts-in-budget
4) 연간 매출액이 1천만 호주달러(한화 약 81억 원) 이하인 기업.
5) 연간 매출액이 5천만 호주달러 이하(한화 약 406억 원)인 기업.
6) The Sydney Morning Herald(2019.4.9), "Tax cuts will cost $30 billion a year and may drive budget back to deficit, research finds,"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tax-cuts-will-cost-30-billion-a-year-and-may-drive-budget-back-to-deficit-research-finds-20190408-p51c0l.html

호주 : 노동당, 내국인 고용 장려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수 감소방안 제안

2019년 4월 23일, 호주 노동당 대표 빌 쇼튼(Bill Shorten)은 호주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을 연 1만 호주달러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1)]

또한 임시근로비자(temporary skilled visa)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80%가량이 실제로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내국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자를 발행하여 외국인으로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 이와 더불어 현 비자시스템하에서는 고용주들이 타당한 이유나 특별한 증명 없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는 반면, 호주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내국인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한다. 시드니대학 경영학과의 크리스 라이트(Chris F. Wright) 교수는 외국인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노동당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지를 평가하는 절차(skill shortage test)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노동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1) SBS News(2019.4.24), "'Locals are missing out': Shorten vows to crack down on foreign worker visas," https://www.sbs.com.au/news/locals-are-missing-out-shorten-vows-to-crack-down-on-foreign-worker-visas
2) The Guardian(2019.4.22), "Labor pledges stricter rules for skilled worker visa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apr/23/labor-pledges-stricter-rules-for-skilled-worker-visas

베트남 : 은퇴 이후 노인들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

베트남은 2011년부터 인구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 진행이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 「노동법」 제187조에 따른 법정퇴직연령은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5세로 현행 퇴직연령 이후의 인구는 약 1,100만 명(전체 인구의 약 10%)을 상회하고 있고 2050년에는 이 수가 약 2,700만 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의 약 1/4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퇴직연령 이후

노인들의 노동시장 진입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법정 퇴직연령은 비교적 이른 편으로 많은 은퇴자들이 여전히 본인과 가족, 사회를 위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열정과 건강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파악하기로 도시지역의 은퇴자(또는 퇴직연령 이후) 10명 중 약 7명은 비공식적인 부분(예: 폐지수거 또는 노점상 배달 등)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을 위한 노동시장이나 구직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고용주가 요구하는 신입직원은 일반적으로 18~35세 사이로 45세 이상이 되면 직업 선택의 폭이 확연히 줄어들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 채널을 통한 구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풍부한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노인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1)]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2019.4.22), http://baodansinh.vn/ngay-cang-nhieu-nguoi-cao-tuoi-tham-gia-thi-truong-lao-dong-d95844.html

베트남 : 의류제조업계 종사 노동자 수 약 250만 명, 임금수준은 전체 산업의 최저인 약 467만 동

베트남에서 섬유·봉제 등 의류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무려 약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열악한 삶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류제조업계의 임금은 전체 산업부문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기본급이 평균 약 467만 동(VND)(한화 약 2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본급여는 전체 급여의 약 64% 수준이며 수당이나 복지혜택 등의 급여가 나머지 약 36%에 해당되지만 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실제 이것들이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평균 약 500만 동(한화 약 24만 원)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며, 이러한 저임금으로 인해 의류제조업 종사 근로자들은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고(31%, 이하 복수응답), 생활비 충당을 위해 차입을 하며(37%), 임시 주거환경(가건물)에서 생활하는(23%) 등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의류제조업계의 파업률은 베트남 전체 파업률의 39%에 달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원인이 저임금 근로조건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베트남은 다수의 잠재적인 노동인구와 풍부한 국내 고용기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지식을 가진 근로자가 전체의 약 10.4%에 불과해 숙련 근로자 부족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게다가 의류제조산업의 대부분이 수출제품 가공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단체교섭 등의 메커니즘도 부족해 외국 유수의 브랜드와의 임금인상 협상 등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실질 임금을 상승하는 방안이 가장 요구되며 이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다.[1)]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2019.4.12), http://baodansinh.vn/luong-khong-du-song—cuoc-song-bap-benh-cua-lao-dong-nganh-may-d95102.html

중국 : 빈부격차 확대

최근 OECD에서 발간된 보고서[1)]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중산층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보고서는 36개 OECD 회원국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4개국을 더해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중산층의 비율은 1980년대 64%에서 오늘날 약 61%로 하락했으며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청년 세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 청년 세대의 중산층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2)]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중국에서도 빈부격차의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 2017년 베인 캐피털(Bain Capital)에 따르면, 전 세계 사치품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유로에 달하는데 그중 32%를 중국인의 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 상업은행(招商银行, China Merchants Bank)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의 VIP 고객 236명의 총자산은 5조 5천억 위안(한화 약 933조 원)이고, 가구당 평균 자산은 233만 위안(한화 약 3억 9,500만 원)이다. 이것은 1.9%의 사람들이 부의 81%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전반적인 부도 증가하고 있지만 '부자 중국인'들의 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는 특히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위크』 중문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상하이와 베이징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스위스에 가깝지만 중국 일부 지역의 생활수준은 과테말라에 가깝다.[3)] 현재 중국인의 재산 규모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 재산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을 때 등급의 최하층에는 농촌지역 주민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시스템은 집체 소유의 토지가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오랫동안 제한해서 농촌 지역의 부동산은 자산가치를 가지기 어려웠고, 호적 제도는 농촌 주민이 대도시 주민이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농촌 주민들이 높은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절대다수의 농촌 주민들은 부동산 시

장에서 배제되었다. 한 매체는 지난 20년간 빈부격차 확대에 기여한 근본적인 요소로 통화 정책, 도시-농촌 이원화 제도, 부동산 규제 정책, 개인 소득의 저성장 등을 꼽았다.[4)]

1) OECD(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Paris, http://www.oecd.org/social/under-pressure-the-squeezed-middle-class-689afed1-en.htm
2) 《凤凰网国际智库》(2019.4.15), 「经合组织经济不平等报告, 收入停滞正将千禧一代挤出中产」, 2019년 4월 18일 검색, https://pit.ifeng.com/c/7lt5owcztzc
3) 《新浪财经》(2019.3.27), 「中国贫富差距有多大？招行年报：2%的人掌握80%财富」, 2019년 4월 18일 검색, http://finance.sina.com.cn/china/gncj/2019-03-27/doc-ihtxyzsm0970345.shtml
4) 《凤凰网财经》(2019.4.2), 「一组银行数据, 带来贫富差距背后的真相!」, 2019년 4월 18일 검색, http://finance.ifeng.com/c/7lXYqjSDgbR

중국 : 농촌 노동력 이동 현황과 농민공의 세대 간 변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중국에서 농촌 노동력 이동 현황과 농민공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먼저 농촌 노동력 이동에 새로운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첫째, 비농업 취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는 약 30%였던 농촌 노동력의 비농업 분야 취업 비율은, 2015년에는 70%로 증가했다. 동시에 농촌 가구 97%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구성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을 하고 있다. 한 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비농업 취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킨 동시에 농촌 가계 소득격차도 증가시켰다. 하지만 농촌 가구가 기본적으로 모두 외부 지역으로 나가 취업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계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둘째,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비농업 취업 비율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외부로 나가 취업하는 인구가 대부분 청년 남성이었지만, 최근에는 여성과 중노년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30세 이하의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1998년 16~20세, 21~25세의 농촌 인구 중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은 각각 60%, 54.7%였지만, 2015년에는 각각 91.5%, 90.3%로 증가했다. 넷째,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 1985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세대 간 직업의 상승 이동률이 더 높았지만 1985년 이후 출생자들은 세대 간 직업의 상승 이동률이 낮아졌다. 세대 간 직업의 상승 이동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사에 따르면, 1985년 이전 출생자 중 아버지가 농민인 경우 20%는 교사나 의사 등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1985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1.6%로 떨어졌다.

농민공의 양상도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

다. 현재 30세 이하의 청년 농민공들을 2세대라고 할 때, 2세대 농민공들은 이전 1세대와 달리 비농업 취업으로의 이동이 훨씬 일찍 완성됨에 따라서 장래 농업에 다시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 농민공 1세대는 토지에 대해 여전히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2세대들은 그러한 감정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농촌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그리고 농업의 생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2세대들은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거의 없어 농업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기 어렵다. 1세대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업에 종사하는 흐름이 이미 출현했다. 하지만 2세대는 도시에서 직업을 못 구하더라도 도시에서의 삶을 추구할 것이다. 2세대 농민공들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이 그리 열악하지 않은 조건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물질적 조건에 대한 압박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1)]

1) 《三联生活周刊》 제1006기(2018.10.1), 「新打工一代:“30岁以下年轻人几乎不再务农”」, 2018년 4월 18일 검색, http://www.lifeweek.com.cn/magazine/lifeweek/2018/1053/, 원문 확인은 http://mini.eastday.com/a/190411003206964.html